

철거 하자니 교통체증 걱정, 안하자니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차질...

# 한남2고가 6개월째 대책 회의만... '진퇴양난' 서울시

차량통행 많고 우회로도 상습정체 시의회 "사업계획 현실성 부족"

서울시가 한남고가 철거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고가를 철거할 경우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녹색교통진흥지역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2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교통 대책을 반년 넘게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여름 철거할 계획이었다가 공사가 올해로 미뤄졌다"며 "구체적인 공사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교통량이 적은 방학시즌에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는 지난해 7월 10일 한남고가를



한남2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조감도. /서울시

철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전 날 돌연 계획을 변경해 철거를 6개월 이상 미룬다고 발표했다. 최종 점검에서 우회도로와 교통신호 체계를 반영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남제2고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남

산1호터널을 통해 강남에서 도심을 연결한다. 국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평일 16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그럼에도 시는 고가차로 철거로 인한 차량 속도 감소 폭이 30% 미만(전체 구간 평균)이면 철거를 단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통영향 점검 결과, 고가 주변

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량 감소 대책과 광역적 교통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한남2고가는 다른 고가차도와 달리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강남지역과 연결돼 상황이 달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우회도로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상습 정체 구역인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서울시의회는 "한남제2고가 철거가 사업 시행 직전 교통대책, 녹색교통진흥지역과의 연계를 이유로 연기됐다"며 "본 사업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계획은 한양도성 내부주요도로를 4~6차로로 줄이고 친환경 경등급제와 연계한 자동차 통행관리 등 도심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한남제2고가 철거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는 지금까지 총 2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다.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은 2억2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또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사업계획은 이미 2016년 10월 수립됐다는 점에서 고가철거계획 수립(2016년 8월)과 상호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된 것은 맞지만, 녹색교통진흥구역을 통해 도심 차량을 줄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2019년부터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국에서 첫 실시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이 도심 내 차량통행량 감소를 담보할 수 없고, 정착 및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면서 "녹색교통진흥지역과 연계할 경우 동 사업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스타트업 지원 '혁신성장펀드' 1.2조 조성

서울시, 2022년까지 시리즈A 투자 6개분야서 총 1250억원 조성키로

#. 스타트업 '직방'은 소비자와 부동산개발자를 연결해 안전한 거래를 돕는 부동산(원룸) 거래중개 플랫폼이다. 서울시 출자펀드를 통해 받은 창업 초기 투자가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돼 6년간 꾸준한 고용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로 성장했다.

서울시는 스타트업에 대한 열악한 투자시장을 바꾸기 위해 '창업투자 혁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시리즈A 투자에 집중한다. 또 초기 시드(Seed) 단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시장도 확대한다.

시리즈A는 창업 초기기업의 데스밸리

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시·VC가 참여하는 2억~10억원 미만 규모 투자시장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 직전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시리즈A는 시제품을 가지고 정식 서비스로 만들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초기 투자의 핵심이다. 투자는 역량 있는 운용사가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정책 방향)과 수익성(운용사의 적정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32억5000만원, 하반기 84억원을 출자해 6개 분야에서 총 1250억원을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분야별 출자 약정금액은 ▲4차 산업혁명 20억원 ▲스마트시티 20억원 ▲문화콘텐츠 20억원 ▲창업지원 22억5000만원 ▲재도전 지원 30억원 ▲바이오 20억원이다. 서울혁신성장펀드 운용은 전문 운용사 8개사(GP)가 진행한다.

지난 2011년 조성된 제1호 서울바이오

펀드의 현재 평균수익률은 291.2%이다. 시는 총 20개의 투자기업 중 이미 4개사로부터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했다. 강스탬바이오텍 등 투자기업 중 5개사가 IPO에 상장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초기 시드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와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자금(40억원)을 매칭해 엔젤시장을 보완하고, 연간 250억원의 후속 투자로 연계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창업투자혁신은 우리 사회에 혁신을 만드는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자 혁신벤처 성장의 긴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술경쟁력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를 확대해 스타트업의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미터기 조정 받고 검사 대기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택시 미터 정비검사장에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 요금을 변경한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16일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 심미터기 조정 받고 검사 대기야(밤 12시~다음날 오전 4시)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 1000원 인상됐다. /연합뉴스

## 서울시, 日 '위안부' 사진 3장 최초공개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담은 3장의 실물 사진이 국내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은 25일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에서 한국인 위안부 사진 3장과 각종 사료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고(故) 박영심 씨가 중국 송산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로 잡혀있을 당시 만삭이었던 모습이 담긴 사진 1점과 베마(현 미얀마) 미치나 지역의 한국인 위안부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2점, 총 3점이다.

실물 사진 3점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 미군이 만든 사진앨범의 일부다. 사진은 각각 1944년 8월 14일과 9월 3일에 촬영됐다. 미군이 1944~1945년 경 앨범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앨범 없이 낱장으로 흩어져 있던 사진을 지난해 9월 서울대 연구팀이 개인소장자를 통해 확보했다.

그동안 공개됐던 위안부 사진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을 스캔한 것이다. 실물 사진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사진 실물 3장을 포함해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귀환에 대



1944년 8월 14일 촬영된 베마 미치나 '위안부' 사진. /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해 다른 뉴욕타임스 신문 실물(1946년 3월 2일자), 쿤밍보고서와 축섭순선자 명부(복제본), 일본군 위안부 최초 증언자 배봉기의 사진(김현옥 개인 소장) 등이다.

전시는 크게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베마 미치나의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 두 번째는 중국 송산과 텅충의 '위안부'와 박영심의 이야기다. 참혹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삶과 죽음을 담았다. 세 번째는 중부태평양 축섭의 '위안부'와 이복순의 이야기로, 승선 기록에 대한 추적을 통해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복원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네 번째는 오키나와의 '위안부' 배봉기의 삶과 그녀를 기억하는 제2의 증언자 오키나와 주민들을 들여다본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주말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 행사가 4회에 걸쳐 열린다. /김현정 기자

## SH, 청년주택 849세대 내달 입주

임대료 60~70%, 30년 주거보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리츠 1호인 청년주택 849세대가 3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며, 최대 30년간 주거가 보장된다. 은평뉴타운 은뜨락 350세대와 신정3지구 이든채 499세대가 그 대상이다.

서울리츠 1호는 주택도시보증금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출자해 만들었다. SH공사 소유 부지를 30년 동안 장기임차해 청년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은평뉴타운 은뜨락은 전용면적 39~44㎡, 총 350세대다. 보증금은 3633만~4896만원, 임대료는 29~40만원에 공급한다.

신정3지구 이든채는 전용 26~44㎡, 총 499가구다. 보증금은 3197만~5406만원,



은평뉴타운 은뜨락 전경. /서울시

임대료는 20~38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준주거지역에 이룸채(630세대, 올해 8월 입주 예정)와, 강일2지구에 푸르내(119세대, 올해 3월 공급 공고 예정)를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리츠 1호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리츠, 토지지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서울시가 중점 추진중인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유커가 본 서울 '사진展'

서울시, 주한중국문화원서 한달간

유커가 본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인이 찍은 서울, 한국인이 찍은 중국 사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18일부터 한 달간 주한중국문화원에서 '한중사진관광전'을 연다.

한중관광사진전은 지난해 4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의 전시기간 동안 약 2만5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특히 올해는 설날을 큰 명절로 여기는 한중 양국의 문화적 공통점을 고려해 중국 최대명절 춘절시즌(음력 1월)에 맞춰 개최된다.

중국인이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품으로는 ▲서울 한강의 밤하늘을 수놓은 환상적인 불꽃(2018 서울세계불꽃축제 -Pei Xiongjian) ▲남산 아래 화려한 고층 건물 사이 구불구불한 골목에 비친 노란빛(변화의 꿈 -Li Shengsan) 등이 있다. /김현정 기자